



[보안] 디지털 금융과 개인정보 보호의 핵심



언택트 시대와 정보보호산업 촉진

디지털 전환과 비대면 서비스의 확산에 따라 기존 정보보호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회전체 매출액 20조원, 300억 매출액 이상 기업 100개, 일자리 16만 5,000명 창출이라는 3대 목표 수립과 10대 중점 추진 과제를 포함한 '제2차 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을 발표했다.

바
로
가
기

2020

데이터 3법

주요 추진 현황과 전망

2020년 데이터 3법 주요 추진 현황과 전망

카드뉴스 | 코스콤 리포트

데이터를 더욱 안전하게!

데이터 3법

시행령 살펴보기

데이터 3법 시행령 개정안 이렇게 바뀐다

카드뉴스 | 이슈N뉴스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확대, 보안성 충족이 우선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확대, 보안성 충족이 우선

전문가 칼럼 | 오피니언



CIAM의 필요성과 필수기술

CIAM의 필요성과 필수기술

전문가 칼럼 | 이슈N뉴스

4개 인증기관 연합



4개 인증기관 연합, 새로운 공동인증서 시대 개막!

카드뉴스 | 이슈N뉴스

차세대 인증 수단

인증 방법	기반
지식 기반 인증	사용자가 기억하고 있는 지식
소지 기반 인증	소지하고 있는 사용자의 물품을 매개
특징 기반 인증	사용자의 특징을 활용
생체 기반 인증	고유한 사용자의 생체 정보

작은 차이의 승부, 비대면 실명 인증 시스템의 보안

전문가 기고 | 코스콤 리포트



공격자의 눈으로 보안을 주목하다!

인터뷰 | 여의도 프로페셔널

정적 기반과 동적 기반의 보안 기술 차이		
구분	AS-IS: 정적 기반 (타사 경쟁 플레이어)	TO-BE: 동적 기반 (자사 창안 기술)
애플리케이션의 기술적 차이	<p>애플리케이션 내부: 보안 모듈이 앱 내부에 하드 코딩 돼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커가 소스 분석이 용이 • Static(정적인) 보안 모듈 	<p>애플리케이션 내부: 보안 모듈을 할당받을 공간만 확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커의 소스 분석이 불가 • 앱 실행 시마다 시간 제약이 있는 보안 모듈 할당 (보안 모듈 할당될 때마다 전혀 다른 소스 코드 구성)
차별 요소 분석 (위험 요소)	<p>정적 방식(고정된 소스)으로 모듈 분석 100% 가능 앱에 이미 보안 모듈이 탑재돼 있기에 앱 자체를 분석하면 됨</p>	<p>시간 제약이 있는 동적 모듈 할당 방식으로 모듈 분석 불가 앱 실행 시마다, 서버에서 다른 형태의 보안 모듈을 내려줌</p>

차세대 모바일 앱 보안 솔루션, 에버세이프

전문가 기고 | 코스콤 리포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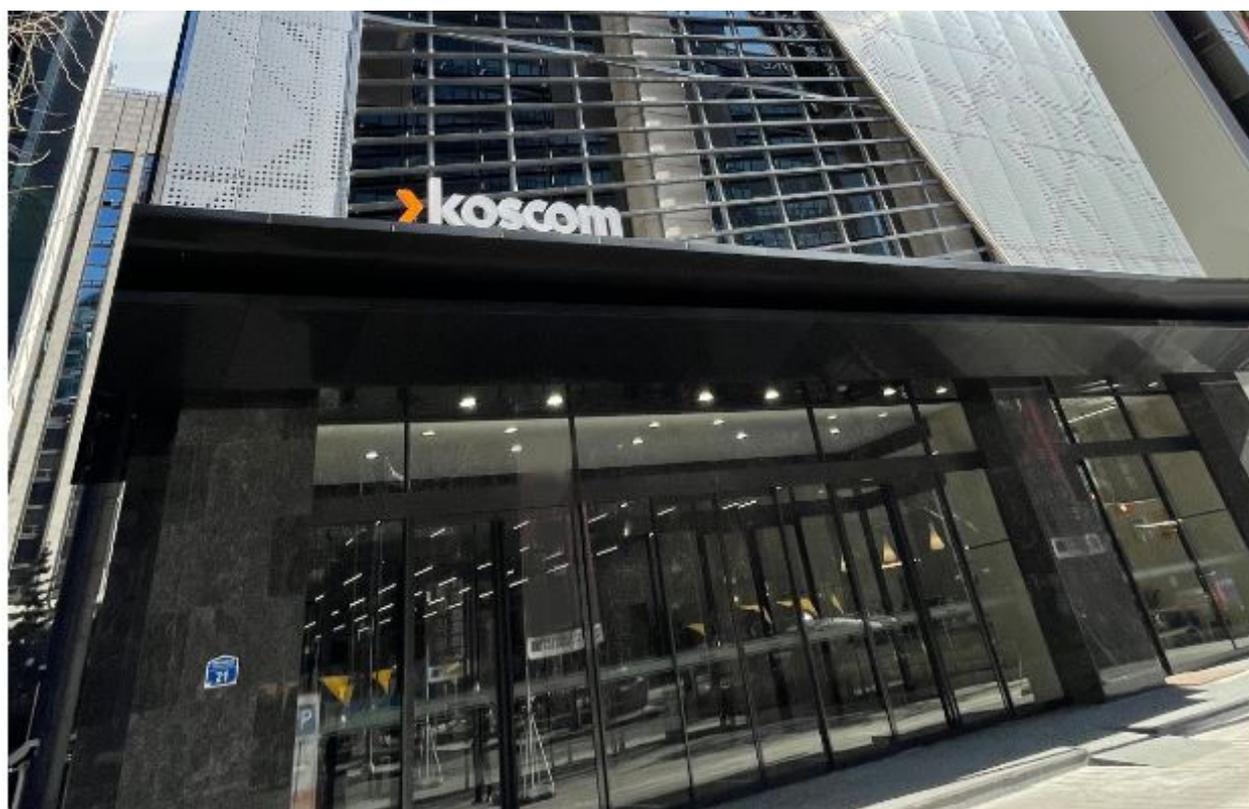
블록체인 보안 분야, 한국이 국제 표준화 선도 기대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전기통신연합 ITU-T SG17(정보보호) 총회에서 염흥열 순천향대학교수 팀이 제안한 2건의 '분산원장기술(블록체인)'의 보안과 관련한 신규 표준 아이템이 채택되었다. 국내외 블록체인의 정보보안 활용 기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제 총회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염흥열 교수를 만나 이번 연구의 성과와 블록체인의 실용화에 대해 들어보았다.

바
로
가
기



[보안 관련 지난 기사 다시 보기](#)



코스콤, 성장유망 핀테크 기업에 금융 클라우드 서비스 구축 제공

코스콤(사장 홍우선)이 국내 중소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금융 클라우드 이용 지원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핀테크 서비스 환경 조성 및 디지털 금융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코스콤은 한국핀테크지원센터(이사장 변영한)가 주관하고 코스콤이 운영 중인 금융 클라우드 지원사업에 선정된, 핀테크 기업 60개사에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환경을 구축했다고 13일 밝혔다.



코스콤 조직개편, 정보보호 및 사업역량 강화

코스콤은 회사 성장과 규제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보호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한 전담 조직체계를 구축하고 사업활성화 체계 구축을 위한 인사를 발령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직 개편 과정에서 코스콤은 사장직속 임원급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직책을 신설하고 (김계영 IT인프라본부장 전보)부서장급 정보보호 전담조직을 구성했다.

- 또한 금융 및 인프라사업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사업 활성화 체계를 구축하였다



코스콤, 금융IT 기업 최초 공공 클라우드 보안인증

코스콤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시행하는 클라우드 정보보호 117개 평가항목을 모두 통과해 국내에서 여섯 번째로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을 취득했다고 22일 밝혔다. 클라우드 보안인증제는 공공부문에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안정성과 신뢰성을 검증해 이용자들의 보안우려를 해소하고 서비스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2016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